

與 “미래 대승적 결단” vs 野 “외교사 최대 치욕”

여야, 극과극 반응

국힘 “한·일 미래협력적 관계로”
민주 “삼전도 굴욕 버금가는 굴욕”
정의 “대법원 판결까지 정면 위배”

‘제3자 변제’가 골자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놓고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미래를 위한 한결음”이라며 정부를 지켜세웠고, 야당은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며 배상안 철회를 요구했다.

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관계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대국적 시각에서 정부가 준비한 것으로 안다”며 “모두의 동의를 다 받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제 정세, 한일관계의 미래, 지나온 과제 등을 정부가 종합해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극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일 양국은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의 적극 개선이 필수적인 요소로 부상했지만, 양국 정부는 오랜 과거사만큼이나 먼 이웃이었다”며 “그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박정, 김홍걸 의원이 6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강제징용 배상안 굴욕 해법 철회, 해법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좁힐 수 없는 한·일 관계에는 멀리 내다보는 국익보다 국내 정치에 끌려들어 당장의 이익을 보려는 극단주의적 세력의 준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엔 노골적으로 반일 감정을 조장하며 이를 불쏘시개 삼아 지지자들의 결집을 시도하는 세력으로 인해 한일관계가 파탄났었고, 일본에서는 민족

주의와 극우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힌 이들이 과거를 부정하고 망언을 쏟아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무엇으로도 과거 일본의 잘못을 덮을 순 없다”면서도 “그러나 어두운 과거에만 매몰돼선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 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언제까지도 죽창가만 외칠순 없다. 죽창가 소리에 경계도 안보도 다 묻혔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운이 달린 외교에는 정치 논리보다 국가 이성이 앞서야 한다”며 “정부 발표의 취지가 정쟁으로 훼손되지 않길 바라며 정치권이 국민과 함께 일본의 호응을 차분히 지켜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이번 배상안을 ‘굴욕 외교’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가히 삼전도의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본 전범 기업들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해이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 모임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일본에 항복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의원 53명은 “정부 발표는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 없는 돈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받지 않겠다’는 양극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도 이날 “우리 정부의 자발적 굴욕”이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상무위 회의에서 “누구도 이해 못 할 또 하나의 외교 참사”라며 “대법원 판결까지 정면으로 위배하며 서두르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의당 및 무소속 등 총 53명으로 구성된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 및 전범기업 직접 배상 촉구 의원모임’은 긴급 기자회견에서 규탄 성명서를 내고 정부안 철회를 요구했다.

최창지 기자·뉴시스

美·日 “제3자 변제 해법, 한·미·일 관계 새 장 열어”

바이든 “일·한 지도자 지원할 것”
기시다 “尹과 소통 이어가겠다”

정부의 6일 일제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와 관련, 미국과 일본은 “동맹국 간 새로운 외교의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일 발표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을 통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 간의 획기적인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두 차례의 역사적인 외교장관 성명을 통해 양국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

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이번 새로운 합의를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가려는 일본과 한국의 지도자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면서 “양국의 발걸음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비전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도 이번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별도로 내놨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국과 일본 정부의 역사적 선언”이라는 성명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이라면서 “민감한 역사 문제 논의의 결론에 관한 한일 양국 정부의 역사적인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블링

컨 장관은 “한·미·일 3자 관계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동된 비전의 핵심”이라면서 “다른 부서 동료들과 함께 한일 간 문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또 “세계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정기적인 3자 대화를 포함해 양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그리고 각 행정부의 용기와 비전에 박수를 보내며 이 중대한 성과에 국제사회가 함께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일한(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린 것으로 평가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6일 도쿄 집무실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하야시 외무상은 대한민국 정부가 강제 징용 해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라며 “앞으로 한일 간 정치·문화·경제적 관계가 심화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P/뉴시스

기시다 총리는 “한국은 국제사회에 있어서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과 의사소통을 긴밀하게 꾀하며, 일한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

다. 아울러 한일 관계 발전 배경에는 “현재 전략 환경”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일한(한일), 미일한(한미일) 전략적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지 기자·뉴시스

방수제·바닥재·혼화제·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100% 친환경제품 (비노출)

민감한 피부, 호흡기, 눈, 어린이, 동물, 식물, 수생생물, 수생동물과 친화적

물방울, 곰팡이, 누출, 누출 방지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휴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²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 회색) 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³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방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해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드림케미칼코리아

자매품 바르는 황토벽지 천연황토코팅제 DK-308 황토리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 CHEMICAL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